

# 석창포의 藥理에 대한 文獻的 考察

鄭國永\* · 高炳熙\* · 宋一炳\*

## The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effect of *Acorus gramineus* Soland.

*Jung Kuk-yung, Kho Byung-hee,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Purpose and Method : We have many difficulty of using the existing medical Hurb based on the theory of Em- Yang and the five elements, this is why we still do not explain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al Hurb Classification and do not have the Sasang Constitutional Pharmacology exactly. so we easily enter into a dispute and confusion.  
So through literary consideration about *Acorus gramineus* Soland.  
I try to objectify Sasang Constitutional Clasification of *Acorus gramineus* Soland and the spirit of using *Acorus gramineus* Soland and common proper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al Hurb and try to find out a clue that search the effect of other Sasang Constitutional Medical Hurb.
2. Result : Qi(氣) and mi(味) of *Acorus gramineus* Soland have aroma and hot taste and have won Qi(溫氣), the using portion of *Acorus gramineus* Soland is root as medical Hurb.  
So *Acorus gramineus* Soland rise from Goonghacho(中下焦) to Sangcho(上焦) and divided impurity and purity and able to remove the turbidity of Qi(氣)Ack(液)  
*Acorus gramineus* Soland have the effect of progressing the involution of Paeqi(肺氣) and divided impurity and purity of Qi(氣) and ack(液) and improve the fuction and structure of Tae-Em-In.

---

\* 慶熙大學校 韓醫學科 四象醫學科

I think that the method of literay consideration on object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Pharmacology is of great value.

3. Key wards : the existing medical Hurbs, Sasang Constitutional Medical Hurb Classification, Sasang Constitution Pharmacology, progressing the involution of Paeqi(肺氣) divide impurity and purity, objectification

## 초 록

### 1. 目的 및 方法

陰陽五行的 氣味論에 立脚한 既存藥物들을 四象醫學內의 각 體質病證에 사용코자 했을때 아직까지도 그 藥物의 精確한 體質所屬과 四象醫學의 藥理를 설명하지 못하고 混沌과 論爭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研究는 石菖浦이라는 藥物을 통해 藥物의 體質所屬과 體質病證下에서의 用藥精神 그리고 體質藥物의 共通屬性을 客觀化하며 각 다른 藥物의 藥理糾明의 客觀化 研究에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文獻的 考察의 方法을 위주로 현재 사용되는 石菖浦의 種類와 學名을 살펴보고 각 文獻 上에서 기술된 石菖浦의 藥效를 검토하였고 필요에 따라 다른 藥物을 引用하였으며 東醫寶鑑과 四象處方 중에 石菖浦을 單方으로 사용하거나 포함한 方劑가 있는 門을 종합 정리하여 그를 통해 石菖浦의 體質所屬과 效能을 비교 검토하였다.

### 2. 結果 및 結論

기존 本草論의으로 石菖浦는 氣味가 辛溫하여 香이 있고 藥用部位가 뿌리여서 上焦인 肺와 中下焦인 肝을 兼하여 上昇하며 燥濕祛痰 및 分別淸濁하여 氣液의 沮滯와 錯綜을 均調한다. 이런 藥理는 單味를 떠나 四象醫學內의 體質病證에 소속되는 過程중에서 太陰人의 氣液의 分別淸濁작용을 통한 肺以呼, 肝以吸의 昇降調節의 用藥精神을 찾을 수 있고 錯綜肺氣之參伍均調의 藥性을 가짐을 알수 있다. 機能과 構造를 동시에 改善시키며 단순 治濕이 아닌 氣液之氣의 呼散吸聚관계로만 설명가능함을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四象體質 藥物의 客觀化에 文獻的 考察의 方法은 그 유용성 및 가치가 크다 할수 있다.

중심어 : 既存藥物, 四象體質藥物分類, 四象體質藥理學, 錯綜肺氣之參伍均調, 分別淸濁, 客觀化

## (1) 서 론

古代로부터 人間과 疾病과의 싸움은 많은 施行錯誤를 거쳐 尙大한 經驗의 蓄積을 이루어 왔다. 그

속에서 本草에 대해 陰陽五行的 理論定立은 現在에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人類의 귀중한 文化遺産이라 할수 있다. 이런 既存의 本草에 대한 藥理論에 朝鮮後期の 李濟馬는 독특한 四元 構造의 人間觀

을 통해 宇宙本體와 人間을 規定하고<sup>1)</sup> 既存 藥劑의 새로운 體質의 分類과 새로운 用藥精神을 바탕으로 한 藥理論의 새로운 地坪을 열어 놓았으니 既存 本草藥理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사건이라 할수 있다. 既存 藥物理論이 陰陽五行的 氣味論에 立脚한 經驗의 集大成이라면 四象醫學에서의 藥理는 喜怒哀樂 四氣의 特性을 바탕으로 太少陰陽人 각각의 氣의 偏向性을 補充하는 四象體質病證안에서 이야기되고 이해될수 있는 전혀 새로운 藥理를 가지고 있다.<sup>2)</sup> 하지만 李濟馬의 著書 중에서 그가 각 藥物에 대한 藥理를 直觀과 經驗에 의해 分類하고 應用함을 볼수 있을 뿐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수 없다. 그래서 筆者는 石菖蒲라는 藥物을 통해 藥物의 分類精神과 體質病證下에서의 運用精神을 文獻的 考察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氣味, 歸經이 어느 體質病證에 所屬되는 지를 밝히고 그리고 石菖蒲가 單味를 떠나 體質病證안에 所屬되는 過程과 構造, 機能兩面으로 石菖蒲가 氣液之氣 代謝의 過程中에 미치는 影響 그리고 同一體質에 있어 다른 藥物의 運用에 있어서의 藥物運用精神을 石菖蒲의 文獻的 考察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2) 本 論

### 1. 植物學的인 接近

#### 1) 異名과 來源<sup>3)</sup>

菖蒲, 昌陽<神農本草經> 昌羊<淮南子> 九節菖蒲<滇南本草> 水劍草<本草綱目> 등으로 記錄되어 있으며 天南星科 植物 石菖蒲의 뿌리이다.

#### 2) 植物學的 分類

石菖蒲 : 단자엽식물 - 야자아강(Arecidae) - 천남성목(Arales spathiflorae) - 천남성과(Araceae) - 창포아과(Pathoideae) - 석창포(A. graminevs)<sup>4)</sup>

#### 3) 石菖蒲와 九節菖蒲의 差異点

名醫別錄에는 菖蒲는 1치9마디인 것이 좋다<sup>5)</sup>고 하였기에 石菖蒲에는 九節菖蒲라는 名稱도 있는데 九節菖蒲는 현재 石菖蒲와는 다른 植物로 分명한 區別의 必要性이 있다. 九節菖蒲는 그 名稱이 九節菖蒲<中藥誌> 小菖蒲<中藥誌> 節菖蒲<中藥材手冊> 京菖蒲<藥材學>등등 菖蒲의 이름을 쓰고 있으나 미나리아재비과의 阿爾泰銀蓮花의 뿌리이며 Anemone altaica Fisech, 菊形雙瓶梅라고도 한다.<sup>6)</sup> 이같은 混沌은 石菖蒲와 九節菖蒲의 藥用部位인 뿌리를 觀察하면 쉽게 해결되는 것으로 옛 文獻인 名醫別錄에 1치에 마디가 9개 있는 것이 좋다는 石菖蒲는 현재의 石菖蒲로 보통 뿌리 길이는 3~10~20cm이며 지름은 약 0.5~1cm이다. 마디사이 길이가 약3~6mm이며 環으로 된 節이 있다.<sup>7)</sup> 名醫別錄의 內

- 1) 宋一炳. 韓醫學에 나타난 陰陽觀. 四象醫學會誌. 1997:9(1):p6~7
- 2)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2:4(1):p26-27
- 3)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中藥大辭典. 圖書出版鼎談. 1998:5권 p2983
- 4) 高庚式. 管束植物 分類學. 世文社. 1994:p534-535
- 5) 鄭澍. 임진석음김. 아티즌. 1997. p502
- 6)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中藥大辭典. 圖書出版鼎談. 1998:2卷 p610
- 7) 上同 5卷 p2984

容과 一致하는 것이다. 반면 九節菖蒲는 그 길이가 1~3cm(~6)에 불과하고 반고리 모양으로 돌기한 비늘잎의 흔적이 엇갈려 배열하여 마디모양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sup>8)</sup> 氣味와 藥效가 비슷하고<sup>9)</sup> 뿌리 모양이 상호 엇비슷하여 現 九節菖蒲가 石菖蒲로 混用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石菖蒲와는 明確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本草綱目에서도] 다음과 같이 敘述한다.

“菖蒲에는 모두 5種이 있는데 池澤에 생하며.....高二三尺者 泥菖蒲, 白菖也. 溪澗에 생하며.....高二三尺者 水菖蒲, 溪菖也. 水石之間에 생하며 高尺餘者 石菖蒲, 人家以砂栽之一年.....根如匙柄組者 亦石菖蒲也. 羅浮山記言 山中菖蒲 一寸二十節. 抱朴子言 服食以一寸九節紫花者 尤善”<sup>10)</sup>

## 2. 本草論的 考察

性味 - <<神農本草經>> - 辛溫<sup>11)</sup>

<<神農本草經疏>> - 辛苦溫<sup>12)</sup>  
<<名醫別錄>> - 無毒<sup>13)</sup>  
<<本草綱目>> - 辛溫無毒<sup>14)</sup>  
<<本草求真>> - 辛苦溫<sup>15)</sup>  
<<東醫寶鑑>> - 辛無毒溫(一云平)<sup>16)</sup>

그래서 辛苦溫 無毒한 것으로 본다

歸經 - <<本草綱目>> - 手少陰, 足厥陰<sup>17)</sup>  
<<本草求真>> - 入心, 兼入脾胃膀胱<sup>18)</sup>  
<<東醫學辭典>> - 心, 心包<sup>19)</sup>  
<<韓藥規格註解>> 心肝<sup>20)</sup>

藥效에 대해선

[神農本草經] - 風寒濕痺를 치료, 咳逆上氣, 開心孔, 補五臟, 開九竅, 明耳目, 出音聲<sup>21)</sup>  
[名醫別錄] - 治耳聾, 止小便利, 四肢濕不得屈伸, 身積熱不解, 聰耳目, 益心志<sup>22)</sup>  
[本草新編] - 다만 佐藥使藥으로만 쓸수있다. 開心竅 하는데 꼭 人參을 佐로하고 通氣에는

8) 上同 2卷 p610

9) 上同 2卷 p610-611 九節菖蒲의 性味는 辛微溫. 藥效 및 主治는 開竅, 割痰, 祛風 宣濕, 健胃, 解毒하는 效能이 있다. 熱病으로 意識이 昏迷하고 聾소리를 하는 症勢. 癩癩痰厥, 氣閉耳聾, 多夢, 健忘症, 胸痞嘔惡, 風濕痺痛, 瘡疥腫毒을 治療한다.

10) 李時珍. 圖解本草綱目. 高文社. 1987:p785-786

11)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中藥大辭典. 圖書出版鼎談. 1998:제5卷 p2985

12) 欽定四庫全書. 子部 5, 醫家類43 大成文化社 1995:p775-453

13)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中藥大辭典. 圖書出版鼎談. 1998:第5卷 p2985

14) 李時珍. 圖解本草綱目. 高文社. 1987:p786

15) 황궁숙. 本草求真. 宏業書局 1970:p116

16) 許浚. 東醫寶鑑. 大成文化社. 1992:湯液編:p227

17) 李時珍. 圖解本草綱目. 高文社. 1987:p786

18) 황궁숙. 本草求真. 宏業書局 1970:p116

19) 이명영 외 34人 東醫學辭典 驪江出版社 1989:p532

20) 지형준 外篇. 大韓藥典 및 大韓藥典外 韓藥規註解 第2改訂版. 한국메디칼인덱스사. 1998:p357

21)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中藥大辭典. 圖書出版鼎談. 1998:5卷 p2985

22) 上同 p2985

蒼朮을 君으로 止遺尿에는 人蔘黃耆를 넣어야 效果를 보고 胎動의 安定은 白朮을 많이 넣어야 效果본다. 煩悶除去와 健忘治療에도 人蔘을 君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奇驗을 볼수 없다.23)

[本草正義] - 咳逆上氣는 寒飲濕痰이 膈上에 壅塞하여 氣가 막혀 통하지 않는 것을 治療한다는 말이며 辛은 開泄, 溫은 寒濕을 이기므로 停痰積飲, 濕濁蒙蔽, 胸痺氣滯에 石菖蒲의 香氣로 竅를 利하지 않으면 疏通시킬수 없다. 開心竅 補五臟도 痰濁의 壅塞을 말하는 것이다. 邪穢를 蕩滌하면 九竅는 잘 통하게 되고 臟器는 저절로 補益을 얻는다. 溫燥한 것은 五臟의 眞陰을 補할수 없다. 寒飲이 閉鎖하여 肺氣가 통하지 않아 소리나지 않을 겨우 逐飲宣竅하는 菖蒲로 소리가 자연히 나온다. 止小便利는 清氣가 아래로 꺼져 收攝無權하게 된 症狀을 가리키고 있으며 辛溫은 아래로 下降된 氣를 들어 올릴수 있기에 어쨌면 이 症狀을 治療 할수 있을지 모른다. 溫瘧은 時行의 戾氣이고 濕痰의 蒙蔽를 견하여 가지고 있어 菖蒲는 滌痰辟穢하고 正氣를 補益하여 이를 治할수 있다. 耳鳴은 濕痰이 그 清氣를 막아 甲木의 少陽의 氣가鬱하여 퍼지지 못해서 일으킨 耳鳴을 治療한다는 것이다.24)

[本經疏證] 「人體精神은 돌속에 蓄積한 불과 같고, 肉體는 돌이 불을 蓄積하고 있는 狀態와 같다.

肉體가 차가운 물에 썩워지고 精神이 痰涎에 막히면, 運動이 안 되고 보고 듣는 作用도 제대로 안 된다. 이 상태는 속에서 나올 것이 나오지 못하여 外部 作用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菖蒲는 흙이 전혀 없는 물 밑 깨진 돌틈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이 막은 狀態를 뚫고 구멍을 낸다.」

「補五臟 하는 作用에 開心孔(심장 구멍을 연다) 하는 作用이 포함되며, 明耳目(눈과 귀를 밝힘)하고 出音聲(목소리를 나오게 함)하는 作用도 通九竅하는 作用에 포함된다. 보고 듣고 말하고 行動함은 모두 精神作用이다. 精神은 등불과 같아서 기름을 태워야 불꽃이 일어난다. 火는 氣의 靈이고 氣는 火에 依存하여 움직인다. 氣는 물을 이끌어서 보내고 물은 氣에 막히기도 한다. 氣를 잘 흐르게 하면 물이 잘 흐르고, 물이 잘 흐르면 精神이 더욱 활발해진다. 精神이 활발해지면 氣가 두루 퍼지고 氣가 잘 퍼지면 물이 流通한다. 그러므로 물은 精神에 依存하여 흐른다.」 「菖蒲마디가 촘촘한 점에 意義가 있다. 菖蒲에 있는 마디는 津液이 흐르는 것을 妨害하지 않는다. 그리로 마디가 없다면 津液은 모조리 빠져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菖蒲의 촘촘한 마디에는 적절하게 퍼뜨리면서 抑制하는 意味가 있다. 퍼지면 막힘이 없어져서 濕痺로 생긴 四肢屈伸不遂이 낫는다. 抑制하면 넘치지 않게 되므로 小便이 너무 잘 나오는 症狀이 낫는다. 막히지 않으면 混濁한 것이 없어지고 넘치지 않으면 밝고 맑게 된다. 깨끗하게 빛을 내면 빛을 내는 物體가 밝아지고 耳聾이 없어진다. 要約하면, 菖蒲는 邪氣를 열고 正氣도 복돋는다. 邪氣가 열리면 正氣는 저절로 복돋아지고, 正氣가 복돋아지면 邪氣도 저절로 열린다. 따라서 菖蒲는 물이 混濁하여 神明이 가려지는 모든 症狀에 쓸

23) 上同 p2987

24) 上同 p2988

수 있다.」 25)

既存 本草論的으로 볼때 石菖浦는 寒冷濕潤한 氣候에서 最適의 效能을 갖춘 藥劑가 生産되는데 이는 石菖浦가 適者生存의 原理처럼 寒冷濕潤한 環境에서 자라 人體 寒濕證에 適한 適應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물밑 돌에서 發生하는 생태적 특징은 돌틈에서 생겨 물을 뚫고 나와 하늘로 이어지므로 風寒濕痺를 治療하며 通九竅하는 것이다. 人體가 차가운 水氣에 썩어지거나 痰涎에 막혀서 精神이 活潑하지 못할때는 石菖浦로 開心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돌속에서 發生하여 물위로 자라나오는 石菖浦를 火氣 또는 正氣가 막힌 물을 뚫고 솟아 나오는 것이라 類推하였다. 또한 藥用部位가 뿌리로서 上昇을 주하여<sup>26)</sup> 그 氣가 辛溫하여 沈滯된 生理機能을 促進하고 香이 그 氣에서 나옴으로써 더욱 效能을 增大시키며 石菖浦의 마디는 節宣과 節制의 意味를 가지고 水液의 적절한 퍼짐으로 막혀 混濁한 것을 없애고 또한 넘치지 않게 調節하여 맑게 수액을 분포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石菖浦는 寒冷濕潤한 氣候와 물밑 돌에서

發生하는 生態的 産地의 特性과 香을 가진 辛苦溫한 性味로 人體의 上焦와 下焦인 心과 肝에 入하여 人體의 阻滯되고 混濁된 寒과 濕證을 溫散시키고 藥用部位가 뿌리로 上昇을 주하며 마디를 지닌 外觀上 特徵은 또한 水液 및 濕痰의 適切한 퍼짐과 除去作用을 適切하게 遂行함을 알 수 있었다.

### 3. 《東醫寶鑑》에서의 石菖浦의 主治와 適應症

東醫寶鑑에서 石菖浦는 風門<sup>27)</sup>, 身形門<sup>28)</sup>, 神門<sup>29)</sup>, 聲音門<sup>30)</sup>, 心臟門<sup>31)</sup>, 蟲門<sup>32)</sup>, 眼門<sup>33)</sup>, 耳門<sup>34)</sup>에서 單方으로 <표 1>과 같이 記載되어 있음을 찾아 볼수 있다. 湯液編의 石菖浦의 內容<sup>35)</sup>처럼 크게 石菖浦를 濕生痰 痰生熱 熱生風과 形盛氣衰로 인한 痰涎壅盛으로 부터오는 中風, 또한 開心竅와 精神作用 強化에 使用되었고 寒濕 또는 濕痰으로 인한 蟲病과 眼耳鼻音病에도 使用되었음을 알수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石菖浦는 內景篇에 7門, 外形篇에 5門, 雜病篇에서 6門속에 包含되어 있고 主治症을 살펴보면 內景篇에선 身形門<sup>36)</sup>, 精門<sup>37)</sup>, 神門<sup>38)</sup>,

25) 鄒澍. 임진석음김. 本經疏證. 아티즌 1997:p503-504

26) 清, 唐宗海. 國譯本草問答. 大成文化社 1996:p87

27) 許浚. 東醫寶鑑. 大成文化社 1992:雜病篇:p89

28) 上同:內景篇:p19

29) 上同:p68

30) 上同:p99

31) 上同:p141

32) 上同:p195

33) 上同:外形篇:p323

34) 上同:p338

35) 上同:湯液編:p227

36) 上同:內景篇:p17

37) 上同:p27, p30

38) 上同:p52-6

〈丑 1〉 東醫寶鑑 중 石菖蒲 單方用例

|    |    |   |
|----|----|---|
| 雜病 | 風門 | 治三十六種風無不效   |
| 內景 | 身形 | 輕身延年不老<br>菖蒲酒方, 久服通神明延年益壽   |
|    | 神  | 開心孔, 治多忘, 長智, 取菖蒲 遠志, 爲細末, 每服一錢, 酒飲, 任下, 日三, 令人, 耳目聰明 從外見裏 及千里外事<br>治癲癩 |
|    | 聲音 | 出音聲   |
|    | 心臟 | 開心孔 益心智 令聰明 或未服 或煮服 皆佳  |
|    | 蟲  | 殺腹內諸蟲   |
| 外形 | 眼  | 治飛絲入眼腫痛   |
|    | 耳  | 治耳聾 耳痛  |
| 湯液 |    | 性溫(一云平)味辛無毒 主開心孔 補五臟 通心竅 明耳目 出音聲<br>治風濕痺 殺腹藏虫 辟蚤虱 療多忘 長智 止心腹痛           |

手門39), 聲音門40), 五臟門41), 小便門42)에서 外形篇에선 毛髮門43), 眼門44), 耳門45), 皮膚門46), 肉門47)에서 雜病篇에선 風門48), 內傷門49), 積聚門50), 虛勞門51), 諸瘡門52), 小兒編53)에서 津液痰

飲의 沮滯混濁, 蒙蔽 및 偏在로 인해 發生하는 疾患에 佐使藥으로써 祛風濕消痰通九竅 明耳目神明發聲音의 效能을 발휘함을 알수 있었다.

- 39) 上同:p88  
 40) 上同:p95-96  
 41) 上同:p140  
 42) 上同:p214-216  
 43) 上同:外形篇:p481  
 44) 上同:p299  
 45) 上同:p330-336  
 46) 上同:p441  
 47) 上同:p444  
 48) 上同:雜病篇:p60-70  
 49) 上同:p207  
 50) 上同:p301-308  
 51) 上同:p222-228  
 52) 上同:p427  
 53) 上同:小兒編:p97

〈丑 2〉 東醫寶鑑중 石菖蒲를 包含한 處方用例

|     |      |   |
|-----|------|---|
| 內景篇 | 身形   | 延齡固本丹 : 治諸虛百損 中年陽事不舉 未至五十 鬢髮先白 服至半月 陽事雄壯 至一月 顏如童子 目視十里 服至三月 白髮還黑 久服 神氣不衰 身體輕健 可升仙位  |
|     | 精    | 定志珍珠粉丸 : 治心虛 夢泄<br>加味二陳湯 : 濕痰으로 인한 遺精   |
|     | 神    | 加味定志丸 : 治痰迷心竅 驚悸怔忡<br>靜神丹 : 治憂愁思慮傷心 令人惕然心躁動 驚悸不安<br>加減補心湯 : 治 諸虛健忘<br>壯元丸 : 補心生血 寧神定志 且養開 勤政勞心 燈窓 讀書辛苦 并建忘 怔忡不寐 及不習記而多忘者 服之<br>朱子讀書丸 : 治建忘<br>孔子大聖枕中方 : 服之 令人聰明<br>清心溫膽湯 : 治 諸癩 平肝解鬱 清火化痰 益心血<br>寧志化痰湯 : 治 癲狂初起<br>天王補心丹 : 寧心保神 令人不忘 除怔忡 定驚悸 養育心神<br>補心丸 : 心虛手振 |
|     | 睡眠 夢 | 別離散 : 治 心風爲病 男夢見女 女夢見男 宜此去邪 使不復見 故云別離   |
|     | 聲音   | 人參平補湯 : 治腎虛 聲不出<br>荊蘇湯 : 治感風寒 卒瘕 及失音  |
|     | 五臟   | 醒心散 : 治心虛熱  |
|     | 小便   | 萆薢分清飲 : 治少便白濁 凝結如糊<br>加味清心飲 : 治心熱 小便赤濁<br>水火分清飲 : 治赤白濁  |
| 外形篇 | 毛髮   | 張天師草還丹 : 此藥久服則 身輕隨風而去 如列子之乘虛 若髮白者 從根而黑 如未白者 永不白   |
|     | 眼    | 定心元 : 努肉攀睛  |
|     | 耳門   | 芎藭散 : 治風入耳虛鳴<br>磁石羊賢丸 : 治諸般耳聾 補虛 開竅 行鬱 散風 去濕<br>滋陰地黃湯 : 治色慾動相火 致右耳聾<br>益腎散 : 治腎虛耳聾<br>清神散 : 治風氣壅耳 常重聽 頭目不清<br>塞耳丹 : 治氣壅塞雙聾  |
|     | 皮膚門  | 加減何首烏散 : 治紫白癩風 及癢癩風 白駮 癩疹 疥癬等疾  |
|     | 肉門   | 參苓元 : 治胃中結熱 消穀善食 不生肌肉 此名食休  |
| 雜病篇 | 風門   | 養榮湯 : 治風中血脈 外無六經之形證 內無便尿之阻隔 但肢不能舉 口不能言 或痰迷不省<br>攝生飲 : 治卒中風 不省無熱者 用此<br>地黃飲子 : 治中風 舌瘡 足廢 腎虛弱 基氣厥 不至舌下<br>解語丸 : 治中風言語不正<br>清神解語湯 : 治中風 痰迷心竅 言語蹇澀 或不省人事<br>滌痰湯 : 治中風 痰迷心竅 舌強不能言  |
|     | 內傷   | 麥苓白朮丸 : 治病後 元氣虛弱 此藥 養元氣 補脾胃 進美飲食 清火化痰解鬱   |
|     | 積聚門  | 奔豚丸 : 治腎積<br>溫白元 : 治 積聚痞癥 黃疸鼓脹 十種水氣 八種痞塞 五種淋疾 九種心痛 遠年痼疾 及療七十二種風 三十六種尸 癲狂邪祟 一切復中諸疾<br>金露元 : 治腹內一切積聚癥塊作痛  |
|     | 虛勞門  | 大五補丸 : 補虛勞不足 能交濟水火<br>千金延壽丹 : 治虛勞百證一切虛損   |
|     | 諸瘡門  | 換肌散 : 大風年深 毛脫鼻塌 深重者 取效如神  |
|     | 小兒門  | 芎藭丸 : 治腎氣不足 五六歲 不能言   |

#### 4. 四象醫學의 考察

앞서 石菖浦의 기존 本草論的 설명은 陰陽五行의 사고에 의한 藥理로서 四象醫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劃一的으로 적용되는 기존의 劃一的 藥理에서 벗어나 體質과 病證에 따라 差等的으로 작용하는 病證 藥理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東武遺稿의 藥性歌에서 알수있듯이 각 약물은 偏小之臟을 중심으로 氣의 偏向性을 보충하며 肺脾肝腎의 氣運의 昇降을 조절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운용되며 單味를 떠나 體質病證 안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약리를 가지며 體質바탕위에서 새로운 用藥精神을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石菖浦을 고찰함에 있어서 石菖浦의 체질소속과 用藥精神 및 藥性, 病證上에서의 機能과 構造의 동시개선의 여부, 氣液之氣代謝의 조절로 인한 病證解消의 文獻의證據 등을 알아 보고자 한다.

먼저, 石菖浦의 體質所屬과 用藥精神 및 藥性を 살펴보자.

石菖浦는 上焦와 中上焦에 入하여 胃脘部와 胃의 寒濕과 氣液의 停滯混濁을 溫散 通利하는 效能이 있으니 이는 太陰人의 氣液之氣 代謝에 있어서 呼散之氣 不足으로 오는 中濕證에 適合한 藥物이라 하겠다. 또한 體內的 中下焦에 入하여 水分과 濕熱之氣에 感應하여 錯綜된 氣液을 分別清濁 通利시킴으로써 太陰人의 吸聚之氣 太過로 인한 濕熱의 蓄積으로

오는 病證에 또한 適用 가능한 藥物이라 하겠다.

體質藥物의 特性이 自律的 調節精神속에서 어느 한가지 疾患의 治療가 아닌 病證의 흐름에 影響을 주어야 하고 太陰人 藥物이 갖추어야 할 特徵, 즉 氣液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하고 混濁된 水液이나 氣鬱現狀을 풀어주는 分別清濁作用을 통한 氣液之氣 病證을 調節할 수 있어야 하며 完實無病하게 하면서 體質病證을 管理 할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石菖浦는 太陰人 藥物이 充分히 될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東武遺稿의 石菖浦의 藥性を 찾아 보면 錯綜肺氣之 參伍均調이다<sup>54)</sup>. 이 藥性を 알아보기 위해 먼저 石菖浦가 포함된 太陰人 處方を 살펴보면 <표3>과같다.

李濟馬의 新定處方중에서는 石菖浦遠志散<sup>55)</sup>과 麥門冬遠志散<sup>56)</sup>, 麻黃定痛湯<sup>57)</sup>, 太陰調胃湯<sup>58)</sup>, 調胃升清湯<sup>59)</sup>, 清心蓮子湯<sup>60)</sup> 속에 포함되어 있고 元持常의 四象新編 處方중에는 麻黃調胃湯<sup>61)</sup>, 調胃續命湯<sup>62)</sup>, 三神散<sup>63)</sup>내에 포함되어 있어 이들 處方속에서 石菖浦의 作用을 살펴보면, 石菖浦는 表, 裏病證의 處方 모두 포함되어 使用되고 있으며 辛苦溫하여 上焦와 中下焦에 入하여 胃脘의 上昇之力을 돕고 肺의 呼散之氣 不足을 도우면서 氣液의 停滯와 混濁을 分別清濁 시키는 藥理作用을 통해 卒中風 및 耳目聰明, 胸腹痛, 黃疸, 虛勞, 咳嗽등등의 主治作用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그 藥力이 君藥이 될 정도로 強하지를 못하고 단지 氣液의 錯綜을 고

54) 朴寅商編著,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1997;p61

5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驪江出版社. 1992;p277

56)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驪江出版社. 1992:p277.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韓林院 1990:P74

57)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驪江出版社. 1992:p272.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韓林院 1990:P65

5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驪江出版社. 1992:p271.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韓林院 1990:P61

59)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驪江出版社. 1992:p271.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韓林院 1990:P63

60)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驪江出版社. 1992:p271.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韓林院 1990:P64

61)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韓林院 1990:P61

62)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韓林院 1990:P62

63)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韓林院 1990:P74

〈표 3〉 石菖浦가 包含된 太陰人 處方

| 出典           | 處方名    | 處方內容   | 主治                             |
|--------------|--------|--|--------------------------------|
| 李濟馬의<br>新定處方 | 石菖浦遠志散 | 遠志, 石菖浦1錢, 猪牙皂角3分  | 卒中風으로 인한 牙關緊閉<br>眼合手足拘攣        |
|              | 麥門冬遠志散 | 麥門冬3錢, 遠志, 石菖浦1錢, 五味子5分  | 耳目聰明                           |
|              | 麻黃定痛湯  | 葱苡仁3錢, 麻黃, 蘿菥子2錢, 杏仁, 桔梗, 麥門冬, 乾栗, 五味子, 石菖浦, 使君子, 龍眼肉, 柏子仁1錢, 乾栗7個 | 胸腹痛                            |
|              | 太陰調胃湯  | 乾栗, 葱苡仁3錢, 蘿菥子2錢, 五味子, 麥門冬, 石菖浦, 桔梗, 麻黃1錢,                         | 黃疸, 傷寒 時氣頭痛, 身痛, 無汗 食滯 痞滿 跟脚無力 |
|              | 調胃升清湯  | 葱苡仁, 乾栗3錢, 蘿菥子1錢半, 麻黃, 桔梗, 麥門冬, 五味子, 石菖浦, 遠志, 天門冬, 酸棗仁, 龍眼肉1錢      | 食後痞滿 腿脚無力, 中消善飢                |
|              | 清心蓮子湯  | 蓮子, 山藥2錢, 天門冬, 麥門冬, 遠志, 石菖浦, 酸棗仁, 龍眼肉, 柏子仁, 黃芩, 蘿菥子1錢, 菊花3分        | 虛勞, 夢泄無度, 食滯, 胸腹痛, 腹痛, 泄瀉 中風舌卷 |
| 四象新編<br>處方   | 調胃續命湯  | 葱苡仁, 乾栗3錢, 蘿菥子, 藥本2錢, 麥門冬, 石菖浦, 桔梗, 麻黃1錢,                          | 太陰人風症                          |
|              | 麻黃調胃湯  | 麻黃, 葱苡仁, 乾栗3錢, 蘿菥子2錢, 五味子, 麥門冬, 桔梗, 石菖浦1錢                          | 太陰人咳嗽                          |
|              | 三神散    | 遠志, 石菖浦, 龍骨 各等分  | 卒驚風, 牙關緊急, 卒中風 眼合手足拘攣者         |

르게 퍼서 흐름을 원래처럼 원활히 하며 굽어져 있는 肺氣를 바로 잡아주는 정도의 藥力을 가지고 있다 봐야 할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太陰人 藥物의 共通屬性인 分別清濁機能에 가장 近接한 藥性인 「錯綜肺氣之參伍均調」의 藥性을 가진다는 것이다.

李濟馬선생이 太陰人 病證論에서 밝혔듯이 孫思邈의 千金方에서 石菖浦遠志散을 찾아낸 이후 太陰人의 病證藥理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길잡이 役割을

담당한 藥物임을 그 藥性에서 알수 있고 「錯綜肺氣之參伍均調」는 太陰人藥物 共通 屬性인 分別清濁과 가장 흡사한 作用을 提示함을 알수 있다.

그러면 石菖浦가 單方으로 쓰인 用例를 찾아보면 〈표4〉와같다.

單方으로 石菖浦가 쓰이는 主治症을 보면 霍亂<sup>64)</sup>, 鼓脹<sup>65)</sup>, 邪祟<sup>66)</sup>, 吐血<sup>67)</sup>, 眼疾<sup>68)</sup>, 耳痛<sup>69)</sup>, 咽喉<sup>70)</sup>, 心胸<sup>71)</sup>, 腹痛<sup>72)</sup>을 치료하며 表裏病證에 구

64) 朴寅商編著,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1997:p112

65) 上同:p116

66) 上同:p119

67) 上同:p122

68) 上同:p130

69) 上同:p131

70) 上同:p133

71) 上同:p135

72) 上同:p136

〈표 4〉 石菖浦의 單方用例

|                        |                                 |
|------------------------|---------------------------------|
| 霍亂                     | 生菖浦 剉四兩 和水 搗汁 四分服               |
| 鼓脹                     | 石菖浦八兩 爲末 醋糊丸 梧子大 每五十九 白湯下 日三    |
| 邪祟                     | 石菖浦 爲末 吸鼻中 又取石菖浦汁 灌口中           |
| 吐血                     | 石菖浦 煎水 和貝母末 二錢服                 |
| 眼疾<br>(內外障·一切赤痛)       | 石菖浦 取自然汁 火煮成膏 日點之               |
| 耳痛<br>(耳痛耳瘡 耳鳴耳聾)      | 石菖浦 取汁 入耳                       |
| 咽喉<br>(喉痺腫 痛卒腫 不語生瘡乳蛾) | 石菖浦 根水煎熱服                       |
| 心胸<br>(冷熱蟲諸痛)          | 石菖浦 竹茹 各五錢 水煎服<br>烏梅5錢 石菖浦3錢 煎服 |
| 腹痛                     | 石菖浦 爲末 每2錢 白湯下 或酒下              |

에없이 鎮靜, 健胃, 鎮痛, 抗疹菌작용의 效能<sup>73)</sup>과 祛濕溫散 通利의 分別淸濁作用을 하는 것을 알수 있다

石菖浦를 包含한 四象方劑 用例은 50門에 걸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廣範圍하게 거의 모든 疾病에 두루 쓰이고 있다. 주로 表病證 處方에 많이 活用이 되며 裏病證 處方에도 包含되어 使用됨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以上과 같이 石菖浦는 表裏病證 모두에 使用될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東醫寶鑑 處方에서 보다도 훨씬 廣範圍하고 거의 모든 病證에 使用可能함을 알수 있었다. 이것은 石菖浦의 藥性에서 말해 주듯이 太陰人의 保命之主인 呼散之氣의 不足에서 오는 表病이나 裏病證에서 分別淸濁을 통해 錯綜 沮滯된 呼散之氣를 均調시킴으로서 病證을 解消시킬수 있음을 確認 할수 있는 것이다.

## 結 論

以上の 文獻의 考察을 통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名醫別錄에 記載된 九節菖浦는 現在의 石菖浦로 學名 *Acorus gramineus* Soland이며 現在 九節菖浦는 學名 *Anemone altaica* Fisech로서 類似한 氣味와 效能 그리고 뿌리 모양으로 混濁될 수 있으나 明確히 서로 다른 藥物임을 알수 있었다.
2. 石菖浦는 上焦 中下焦에 入하여 氣液의 停滯 混濁을 溫散通利 시키는 分別淸濁作用을 가지고 있어 이는 太陰人의 氣液之氣 代謝를 調節하는 太陰人 藥物임을 알수 있다.
3. 石菖浦의 錯綜肺氣之參伍均調의 藥性은 太陰人 藥物의 共通屬性을 찾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提示하고 있다.
4. 石菖浦와 같이 四象體質藥物의 客觀化에 文獻的 考察의 接近方法은 그 有用성이 매우 크다 할수 있으며 앞으로 다른 藥物에 까지도 더욱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 參 考 文 獻

1. 高庚式. 管束植物分類學. 世文社. 1994.
2.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中藥大辭典. 圖書出版鼎談. 1998.
3. 清, 唐宗海. 國譯本草問答. 大成文化社. 1996..
4. 朴寅商編著.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1997.
5. 宋一炳. 韓醫學에 나타난 陰陽觀. 四象醫學會誌

73) 지형준 外篇. 大韓藥典 및 大韓藥典外 韓藥規格註解. 第2改訂版. 한국메디칼인덱스사. 1998;p357

- 1997..
6.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2.
  7. 이명영외 34인. 東醫學辭典. 驪江出版社. 1989.
  8. 李時珍. 圖解本草綱目. 高文社. 1987.
  9. 李濟馬. 國譯東醫壽世保元. 驪江出版社. 1992.
  10.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韓林院. 1990.
  11. 지형준 外編. 大韓藥典 및, 大韓藥典外 韓藥規格註解 第2改訂版. 한국메디칼인덱스사. 1998.
  12. 許浚. 東醫寶鑑. 大成文化社. 1992.
  13. 鄒澍. 임진석음김 本經疏證 아티즌. 1997.
  14. 황궁숙. 本草求真. 宏業書局. 1970.
  15. 欽定四庫全書. 子部5. 醫家類43 大成文化社. 1995.